

이란의 관광산업 현황

(2016.06.06.)

■ 이란은 중동지역 최대의 역사, 종교 관광산업의 중심

- 고대 페르시아 문화유산과 유물이 약 80만-100만 건으로 추정되며, 2015년 12월 현재, 이란의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유적, 10만-15만 건 확인
- 이란 정부는 2025년 기준 관광객을 연간 2천만 명으로 기대하고, 300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창출 예측
- 의료 관광에서 이란의 연간 매출 400만 달러이상, 장래에 25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란 '20년 비전' 문서 2025 프로젝트 투자에 따라서 32억 달러 관광분야에 투자계획 수립

목차

I. 이란 관광 산업의 특성

1. 역사 문화적 특성
2. 이란의 관광 정책

II. 관광산업의 현황

1. 관광산업의 활성화
2. 주요관광 정책

III. 이란의 주요 관광 거점

1. 쉬라즈
2. 이스파한
3. 테헤란

1. 역사 문화적 특성

■ 중동지역 최대의 역사적, 종교적 관광산업의 중심

- 고대 페르시아 문화유산은 이란 관광 산업의 특성을 담고 있으며, 전통 공예는 충분히 잠재적 성장을 가능케 할 조건임.
- ❖ 고고학적 유물이 80만-100만 건으로 추정되며, 2015년 12월 현재, 이란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유적, 10만-15만 건 정도가 확인됨.
- ❖ 전체 유물 중 3만 1300개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19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밖에 60여개는 세계유산 등록후보에 올라 있음.
- 수천 년간 문명의 역사가 이란 전국에 수많은 문화적, 종교적 건축물로 존재.
- ❖ 이란 전역에 남아 있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유적을 주요한 관광 자원화하고 있음.
 - 남부 쉬라즈의 페르세폴리스와 파사르가다에, 서쪽 케르만 샤 국가 다케포스탄 및 비소토완 바위 유적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함.
- 중부 이스파한, 야즈드와 같은 도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고대 건축물과 拜火教(조로아스터교) 사원이 존재하는 등, 이란인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중심에서 독자적인 정신세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을 증명함.
- 이란 중부 아프야네 북부 마슈레, 북서부 칸다와안 남서부 메이만 드 라는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진 마을은 새롭게 개발되는 관광 명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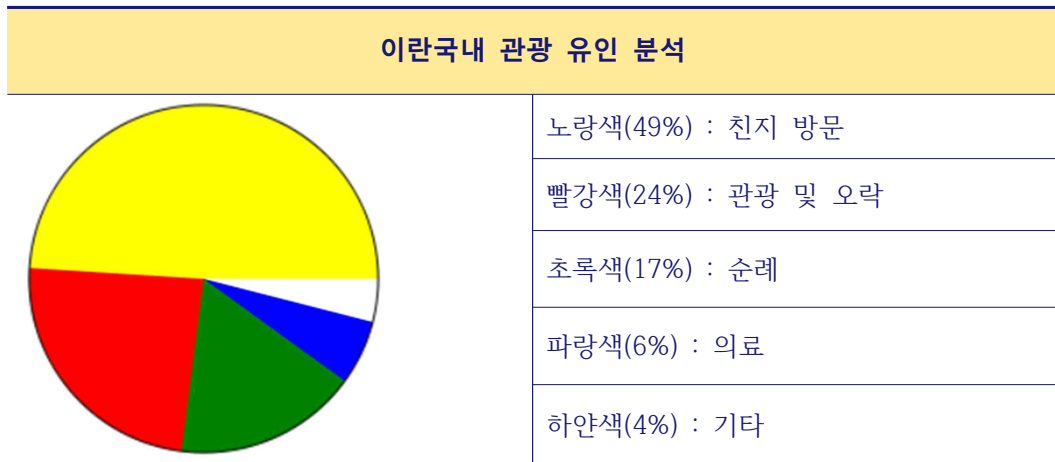
■ 이란은 시아 이슬람 전통의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

- 시아파 신비주의 신앙에서 유래 된 내용을 묘사하는, 독특한 건축 유형, 디자인, 색채를 가지고 있음.
- ❖ 이란에 있는 많은 도시에서 보이는 유서 깊은 대형 모스크, 시인과 맘룩시대의 무덤, 기타 문화재, 유서 깊은 저택과 궁전, 박물관 등은 모두 고대 이란의 다양하고 고유한 기교를 보여 주고 있음.
- 역사적인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란의 다양한 기후와 풍토를 체험할 수 있음.
- ❖ 이란 남부 연안의 지역에서 북부 카스피 해 연안 사이에는 다양한 기후 풍토를 보이고 알보르즈 산맥과 자그로스 산맥, 울창한 수림지는 풍토와 생활양식의 진수를 보여 줌.
- ❖ 중앙부의 사막에도 관광 명소로서의 경승지가 있고, 사막 관광은 새로운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최적한 기회임.

2. 이란의 관광정책

■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은 관광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임.

- 이란 문화의 유산/전통 공예/관광청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역의 관광산업에 투자 유치가 최우선 과제임.
- ❖ 이란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이란 방문한 유럽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 3배로 증가하고 있음.
- ❖ 열차를 통한 이란관광으로, 주로 이스파한, 시라즈, 타브리즈, 잔지안 등 이란 역사적인 도시를 방문하고 있음.
- ❖ 관광산업은 이란을 세계의 관광 산업의 중심지, 그리고 종교적, 역사적 거점으로 부각시킬 중요한 분야로 기대 됨.
- 이란은 관광산업과 관련해 문화, 종교, 의료 등 개별 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 ❖ 의료 관광에서 이란의 연간 매출 400만 달러이상이며, 장래에 25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음.(Masoud Soltanifar, ICHHTO 회장)
- 주변국가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 품질 때문에 개인 치료 목적으로 이란을 방문하는 환자 수는 확대되고 있음.



■ 2014-2015 회계년 3월 21일 기준으로 전년도 보다 4% 많은 5백만의 관광객이 이란을 방문

- 경제제재 해제 이후의 관광산업 개발 계획
- ❖ Masoud Soltanifar, 이란 문화관광부 장관은 2015년에 5백만 명의 관광객을 이란에 유치하였고, 그리고 10년 안에 관광객 수를 2천만 명을 증가 시킬 계획이라고 공표.
- ❖ 이란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3% 성장, 관광업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음.
- 이란의 관광 산업이 목표대로 이루어진다면 관광수입은 연간 20억 달러를 기대할 수 있음.

- 2009년의 220만에서 2011년에는 360만 2015년에는 500만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인당 평균 방문 당 1850 달러를 지출.
- 해외 관광객들은 단순관광 목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외주재 이란 시민 또는 이란 밖에 거주자의 친지 방문이며 그밖에 성지순례 목적으로 방문함.
- ❖ 관광, 비즈니스, 종교 순례자 등이 대부분 북미와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연합에서 방문하고, 10% 미만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방문함(이란정부 통계).

■ 유명 관광지 이스파한, 쉬라즈, 카스피해

- Melia Hotels International 그룹은 카스피해 주변에 5성급 호텔을 2016년에 완공 계획.
- ❖ 2020년 까지 이란은 900개의 호텔을 신축 예정.
- ❖ 현재 이란에는 768개의 호텔이 등록되어 있음(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
- ❖ 두바이의 주메이라와 아부다비의 로타나 그룹이 이란에 대한 투자를 검토.
- 아야톨라 호메이니 통치시기에 미국 호텔인 하얏트, 쉐라톤 등을 추방했기 때문에 미국호텔의 이란진출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이스파한, 쉬라즈 등 이란의 관광시장 개방.
- ❖ 페르세폴리스 (이란 남서부에 있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 수도 유적지)등의 유적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걸프 해안의 무공해 관광지가 매력적이며, 산악지대에서 스키관광 유치 가능함.



이란 관광산업의 현황

1. 관광산업의 활성화

■ 관광 인프라

- 이란의 15개 주요도로가 국제 교통 노선에 연결되어 있음.
- ❖ 이라크, 터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국경과 연결.
- ❖ 철도는 터키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70%가 육상으로 항공으로 29%, 그리고 해상으로 1%가 이용되고 있음.

- ❖ 이맘 호메이니(Imam Khomeini)국제 공항이 2005년에 재개되었고, Mahan 항공, Aseman, Caspian 항공 그리고 Kish 항공 등 4개의 항공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음.

■ 관광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

- 여행 및 관광 분야에서는 41만300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으며, 이는 총 고용의 1.8% 이상을 점유함(2014년 이란 정부 보고).
- ❖ 2015년에 4.4%가 증가하여 65만6천명 (총 고용의 2.2%)을 일자리를 창출함.
- ❖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sation) 및 관광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관광산업은 장래 2018년 까지 128만550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 현재 정부 차원에서 관광업 육성을 위해 950건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 이란 정부는 2025년에는 관광객을 연간 2천만 명으로 기대하고, 300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임.
- ❖ 현재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500개의 호텔이 완공 단계에 있음.
- ❖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인 카스피해 연안에는 국제 유명호텔이 경쟁적으로 유치되고 있음.

■ 관광산업의 인구통계

- 2013년 기준 이란 476만, 외국 관광객의 유입 수에 따라서 2억 달러는 국가 경제에 기여.
- ❖ 2012년 이란 리알화의 강한 평가절하가 이란에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 관광객의 대부분은 중앙아시아의 각국을 포함한 아시아 방문객이 90% 정도이고, 북미와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연합에서 방문한 관광객 수는 비교적 점유율(약 10%)이 낮음.
- ❖ 198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미국 관광객들은 이란을 방문 중지하였음.
- ❖ 유럽 관광객은 혁명 전후 방문객 숫자가 비슷한 수준임.
- 관광 비자는 Qom과 같은 주요 순례를 하기 위한 아시아 무슬림들의 단체여행이고,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밖의 유럽 국가들은 고대 유적지 및 기념물 방문하고 있음.
- ❖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는 이스파한(Esfahan), 마샤드(Mashhad), 쉬라즈(Shiraz) 등임.

■ 관광산업의 기반시설

- 전국적으로 숙박시설 235개이 호텔, 호텔 아파트, 모텔, 게스트 하우스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 현재 400개의 호텔 및 200개의 호텔 아파트가 건축 중임.
- ❖ 건설의 66%가 Gilan, Isfahan, Khorasan, Mazandaran의 지방에서 추진 중임.

2. 주요관광 정책

■ 관광 인프라 확충

- 이란 ' 20년 비전 ' 문서 2025 프로젝트 투자에 따라서 32 억 달러가 투자 됨.
- ❖ 이에 대한 효과는 새로운 관광 부문 개발과 2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 목표.
- ❖ 이에 따른 후속 전략으로 국내 및 해외 직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50% 세금 면제.
- 이전 관광부서에 등록된 5성급 호텔을 포함 하도록 확장.
- 기타 관광 관련 설비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 이란에서 관광 부문에 대한 고려는 생태 관광, 해안선, 역사적 유물, 수공예 마을, 및 의료 보건 관광 (예: 물 치료)의 복원.
- ❖ 매년 3만 명의 관광객이 치료 목적으로 이란의 의료시설을 이용(2012년 기준).
- ❖ 이란의 지리적 이점과, 비교적 우수한 의료 서비스,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의료 연구 및 기술 개발과 더불어 이란 통화의 낮은 환율 등에 힘입어 의료 관광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음.
- ❖ 2005년 이후, 5% 수준의 의료관광객이 증가하였음. 주요 의료 관광의 수요자는 이웃 국가인 Arzebaijan이며, 이는 언어가 쉽게 통용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이란의 관광정책의 문제점

- 이란의 관광 자원에 대한 미약한 광고, 불안정한 정치 사회 환경, 및 지역 조건, 관광 분야에 효율적인 계획 부재 등으로 이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관광 산업의 성장을 방해 요소임.

- 이란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9개중에 대표적인 도시인 쉬라즈, 이스파한, 테헤란지역의 명승지를 위주로 관광프로그램 개발.
- ❖ 테헤란이 이란의 머리라면, 종교의 중심지인 콤은 이란의 영혼으로 비유되는데, 이스파한은 이란의 심장을 상징함.

1. 쉬라즈

■ 쉬라즈와 페르세폴리스

- 쉬라즈는 테헤란 남쪽 1000km 정도에 위치한 상하의 기온에 남부 최대의 도시.
- ❖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언어도 사투리 방언이 많고, 인종도 북쪽 아리안 족 위주의 이란인들과는 다소 다르고, 문화도 특이함.
- ❖ 쉬라즈에는 거울로 장식된 “거울 궁전”과 “하페즈” 시인의 “마즐레움/무덤”, 동백꽃을 비롯한 다양한 꽃나무가 공원, 도시 곳곳에 무성한 화원 같은 오아시스 도시임.
- 쉬라즈는 이란을 대표하는 서정시인 하페즈의 묘, 잔드왕조의 카림 칸 성채, 코란게이트, 나시르 올 몰크 모스크(Nasir ol Molk Mosque), 이란 시아파 3대 성지인 샤희체라그 사원, 페르시아 왕들의 암굴묘군 낙쉐로스탐 등이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키루스왕의 무덤과 왕궁터 파사르가드(Pasargad)과 페르시아 최대도시 페르세폴리스(Persepolis)의 위용.

- 오아시스 자안데 강 위에 건설된 시오셰(Si-o-She)다리,
- ❖ 왕의 정자가 있는 카주다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체헬소툰(Chehel Sotun: 40개의 기둥)의 궁전과 정원이 있음.
- ❖ 이슬람건축 정수인 마스제데 자메 모스크(Masjed-e Jameh Mosque)등이 유명함.

■ 페르시아 문명의 전성기를 구가한 고대 도시 “페르세폴리스”로 가는 길.

- 페르세폴리스는 서양식 이름이고, 이란에서는 “탁테 잠시드”라고 호칭하며, 쉬라즈에서 동쪽으로 한 시간 남짓 거리,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함.
- ❖ 과거의 건축물은 대부분 허물어지고 기둥과 주춧돌이 대부분인 그곳은 팔레비 왕정 말기에 “페르시아 2500년”을 기념하면서 대대적으로 꾸며서 화려한 역사를 짐작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음.
- ❖ 이곳이 유명하게 된 것은 남아있는 궁전 건물에 새겨진 각국 사신들의 조공 장면이 새겨진 부조와, 페르시아의 불사조 조각상 등.
- ❖ 당시 세계 각국에서 사신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조공을 받치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데, 신라사람 복장과 모자를 쓴 비슷한 인물들도 발견됨.

2. 이스파한

■ 이란 사파비 왕조의 수도로서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이란이 자랑하는 유적지.

- ❖ 이스파한은 ‘군대(Sepah)가 있는 도시’라는 뜻의 ‘세파한’에서 유래.
- ❖ 이스파한은 테헤란의 남방 약 400km, 이란 고원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항공노선이 테헤란까지는 직항편이 운행 중이고 버스로 7시간 소요.

- 사파비 왕조의 전성기인 압바스 대왕 당시 수도가 이스파한으로 옮겨지고 각종 사원, 궁전, 학교, 다리 등이 건설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 이스파한으로 발전하였음.
- ❖ 사파비 왕조(1502-1736)는 이란 역사에서 핵심부분인데, 7세기 아랍의 침입 이후 투르크족, 몽골족의 지배를 거쳐 약 1000년 만에 왕조를 재건하였음.

■ 이스파한은 이란의 사파비 왕조의 5대왕 압바스 1세가 1591년에 이슬람의 지상낙원을 꿈꾸며 세운 도시로 17세기 실크로드의 길목에 번성한 도시임.

- 사파비 왕조 시절 이스파한에 설치된 카라반사리 중 하나를 호텔로 개조된 중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중의 하나인 압바시.
- ❖ 실크로드 사막을 가로지르던 대상(隊商)들이 상품과 정보를 교환하던 카라반사리는 14세기 중반 호텔로 개조되었고, 이후 압바스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압바시 호텔(Hotel Abbasi)로 불리게 되었음.
- 1979년 유네스코(UNESCO)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맘 광장을 비롯하여, 사파비왕조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묘사한 그림을 볼 수 있는 체헬소튼 궁전 및 저메모스크.
- ❖ 8세기 건립이후, 여러 차례 중수하여 현재의 건물은 11세기 셀주크투르크 시대에 완성된 저메모스크가 유명하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자안데루드 강의 오래된 샤희레스턴 다리와 시오세 폴 다리가 주요 방문지 임.

■ 이스파한의 명소 이맘 광장에는 이맘 모스크, 세이크 로폴라 모스크, 알리 카푸궁, 바자르 등 주요 관광 명소가 모여 있음

- 이맘 광장은 페르시아 정원 양식으로 좌우 대칭적 구조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이스파한에서 가장 공들여 설계된 곳임.
- ❖ 광장 남쪽에 있는 이맘 모스크에 들어가면 모스크의 방향이 약 45도 틀어져 있어서 광장 자체의 대칭미를 살리면서도 모스크는 메카를 향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임.
- ❖ 이맘 광장은 압바스 1세때 폴로 경기관람을 위해 착공되어 “세상의 원형”이라는 뜻의 낙쇄 자한 광장(Naqsh-e Jahan Square)으로 불려왔으나, 이슬람 혁명 이후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혁명 사상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맘 광장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음.

3. 테헤란

■ 테헤란은 세계적인 보석박물관(중앙은행), 고고학박물관(국립박물관), 레자 압바스 박물관, 세계문화유산인 골레스탄 왕궁 및 테헤란을 둘러싸고 있는 다마반드산이 유명.

■ 다마반드산

- 알보르즈 산맥의 봉우리 사이로 삼각형의 형태로 우뚝 솟은 다마반드 산은 고산 증세만 적응해 가면서 오르면 일반인도 정상을 밟아 볼 수 있는 산.
- ❖ 분화구는 없으나 정상에서 유황가스가 분출되고 있어서 활화산으로 분류되면, 테헤란 북동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높이 5700m의 중동에서 제일 높은 산임.
- ❖ 페르시아 전설에는 포악한 머리 3개 달린 용을 페르시아 영웅이 다마반드에 묶어 두었다고 하고, 다마반드 정상에서 불화살을 쏘아 페르시아의 경계를 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옴. 또한 다마반드산은 압제나 외세에 저항하는 이란인의 상징으로서 이란 문학 작품의 소재로 자주 이용되는데, 이란의 1만 리알 지폐에 등장함.

■ 테헤란 국립박물관 (Iran Bastan Museum)

- 프랑스 건축가 앙드레 그다르에 의해 설계된 테헤란 국립박물관은 1937년 개원했으며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 토기, 석조 및 금속조형물, 이슬람 장식물 전시.
- ❖ 유물로는 페르세폴리스, 가즈빈 근처의 이즈마일 아바드, 수스, 레이, 투란그 레페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도자기, 석상과 조각 등 전시.

■ 골레스탄(Golestan) 궁전

- 테헤란에서 가장 오래된 궁이며 카자르왕조 시절 파탈리왕이 거주했던 곳으로, 거울로 둘러지고 전방이 개방된 접견실인 아이바네 타크테 말말(Ivan-e Takht-e Marmar)에는 사람 인형으로 떠받쳐진 장엄한 왕좌가 있음.
- ❖ 1801년에 200명이상의 왕비와 170명의 자식을 거느린 군주였던 파흐드 알리 샤를 위하여 건축되었음. 접견실은 1925년 레자 샤의 대관식을 포함하여, 각종 의식을 치러졌던 역사적인 현장임.

■ 테헤란 전통시장

- 중동 최대 바자르 중 하나로써 10km가 넘는 미로로 구성된 곳으로 독특한 매력이 있으며, 용단, 귀금속을 비롯한 모든 상품이 거래되는 테헤란에서 가장 큰 시장인 동시에 중동 최대의 전통시장임.

끝.